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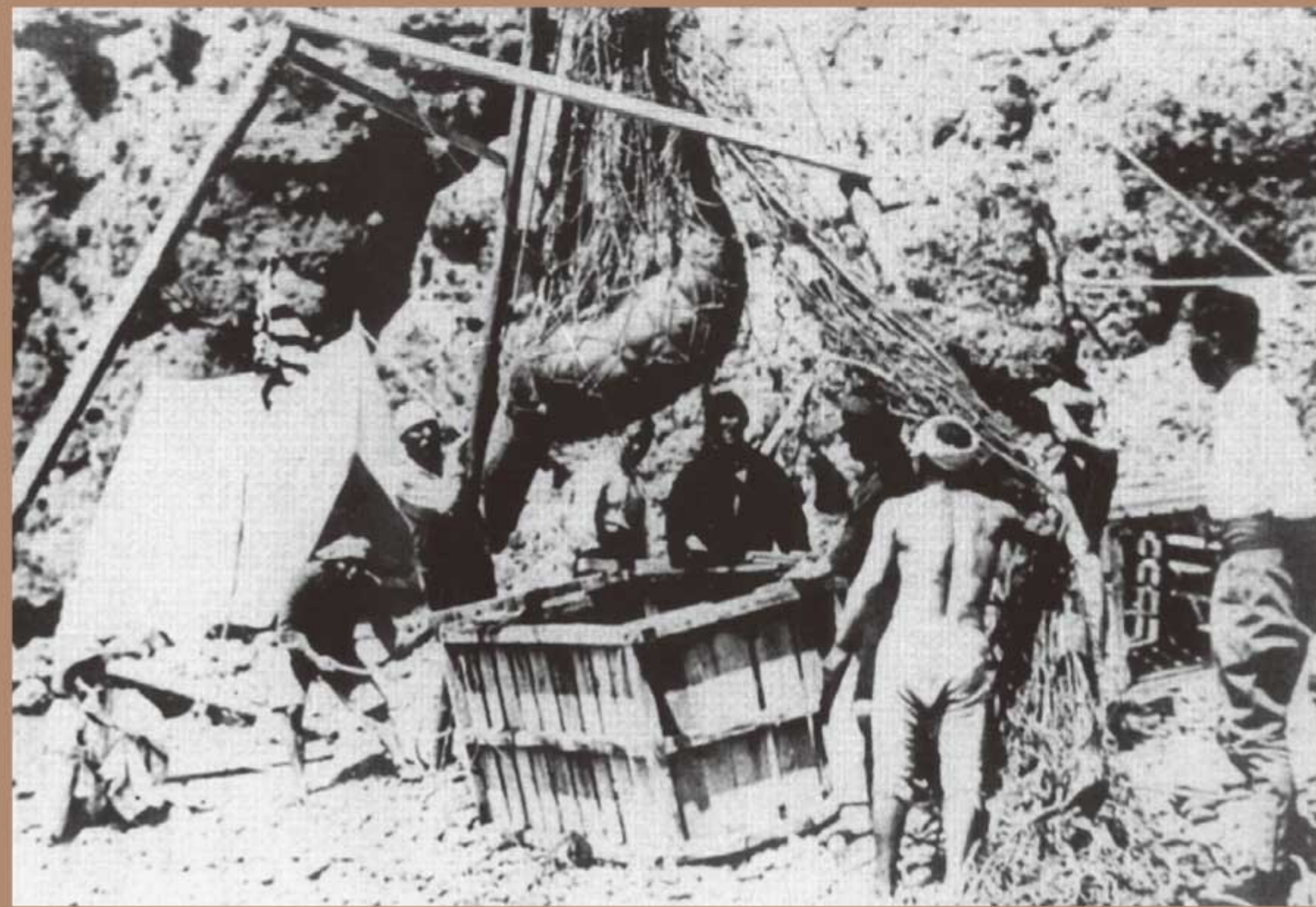
Part 3

An Unfinished
'Conflict'

끝나지 않은
싸움

독도는 강치잡이로 촉발된 문제다

일본이 '다케시마 영토론'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강치잡이는 사실상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였다. 오늘날
강치잡이와 독도 문제는 강치잡이의 본거지인 오키제도
고카이촌의 현장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강치잡이, 1934



한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일본이 독도에 세운 뜻대와 뜻말, 1953

Part 4

An Epitaph for Dokdo's
Gangchi Extinction

독도강치
멸종의 에피타프

독도강치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의 문제다

독도강치 헌정시와 에피타프를 구성해 강치의 멸종을
추모하고 오늘날의 독도 영토문제의 실태를 풀어본다.

강치야 독도야 동해바다야
사라져간 강치를 기념하여
비를 세우노니
우리 바다 영토 지킴이가
되어주소서

독도강치 기념비에서

관람 시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 5월 - 8월	09:00 - 21:00
9월 - 4월	09:00 - 19:00
일요일, 공휴일	09:00 - 19:00
설날, 추석 익일, 어린이날, 광복절	09:00 - 21: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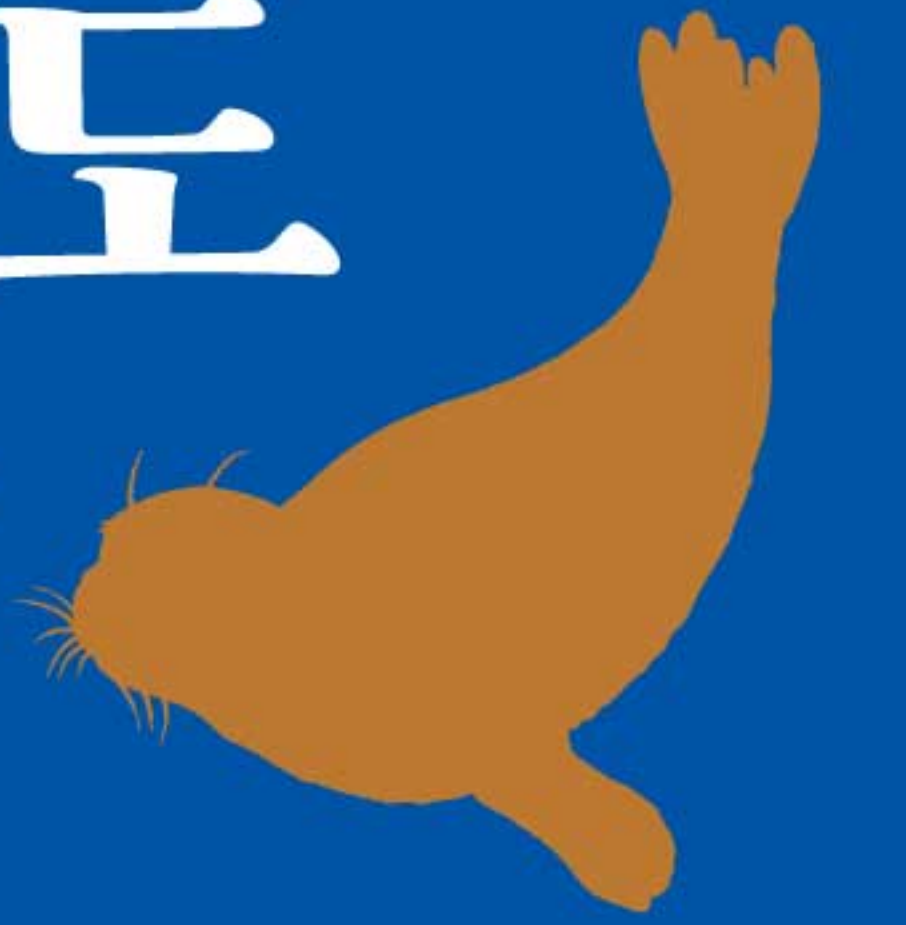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
관람료 무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051-309-1900 / www.knmm.or.kr

강치멸종과
독도침탈

강치야
독도
야



ODDE TO
GANGCHI &
DOKKDO
The Extinction of Gangchi and
the Disseizin of Dokdo

2019.
12.18.
Wed
2020.
03.15.
Sun

주관·주최
국립해양박물관
후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Introduction

사라져간 강치에게 전시를 헌정하며

멸종된 독도강치를 기리는 최초의 '헌정 전시'에 모시고자 합니다.

에도시대로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강치 종 멸종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하고, 이의 생태사적·문명사적 성찰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행한 강치 멸종이란 반생태적 행위를 오히려 '독도에서 어업을 행했다'는 빌미로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독도강치에게 바치는 헌정 전시를 통하여 '예술적 에피타프'로 강치를 길이길이 기억하고자 합니다. 한일관계가 안개 속에 머무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영토 독도 및 강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950년대 초반의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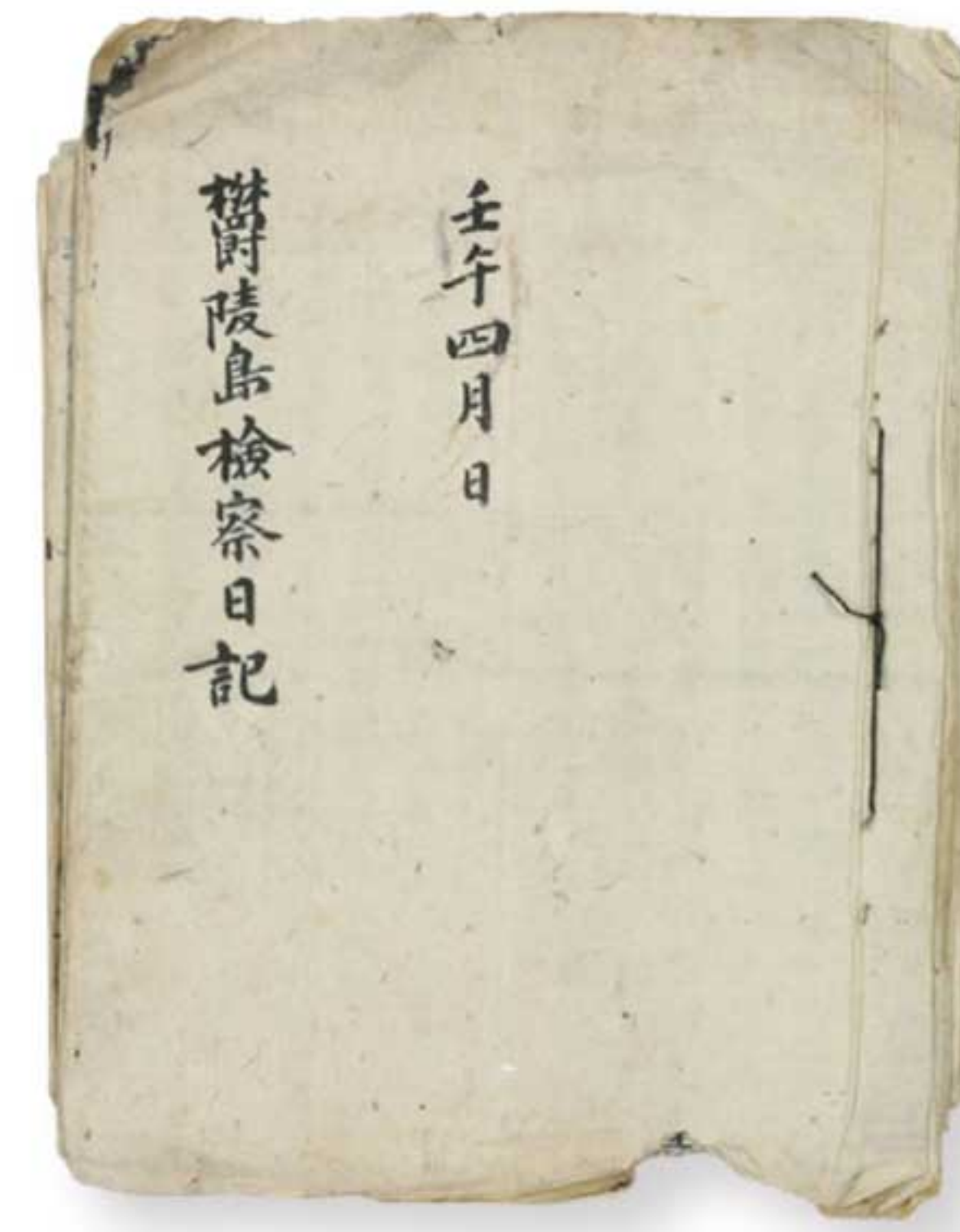
Part 1 The Dodo and the Gangchi

도도와 강치

사라져간 수많은 멸종동물이 기억되길
 종 멸종은 세계사적 규모로
 동시진행되던 반문명사적 집단학살의
 결과다. 300년 전 도도의 멸종은
 사라진 독도강치의 멸종과 닮아 있다.
 독도강치는 일제강점기에 종 소멸
 단계로 접어든다.



화한삼재도회 和漢三才圖會 속의 강치(오른쪽)와 물범(왼쪽)
 “강치 고기는 맛이 없고 강치에서 뽑아낸 기름은 그윽음이 적어
 호롱불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었고 한약재로도 썼다. 눈썹과 가죽은
 각기 담뱃대 소재기와 피혁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울릉도검찰일기
 1881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된 만은 이규원이 이듬해 울릉도를 검찰하기 위해 서울을 출발하면서 울릉도를 검찰하고 서울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일정을 기록을 한 일기다.



울도산해록



죽도제찰 竹島制札
 1837년 일본 막부가 니가타(新潟) 해안에 세운 경고판이다.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땅이므로 어로를 금지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Part 2 Where have all the Gangchi gone? 그 많던 독도강치는 어디로?

독도에서 영원히 사라진 강치

독도는 강치가 쉬기 좋은 암초가 많고 먹이가 풍부해 강치의 낙원이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강치잡이 대학살이 시작되었고, 독도강치는 끝내 멸종되었다.